

1강. 비문학을 한 눈에

😊 비문학을 소개합니다.

언어영역 : 듣기 + 쓰기 + 문학/ _____



영역별 지문 :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생활(택1)

→ 총 6개의 지문, 한 지문 당 3~4문제

혜정샘의 한 마디

모든 지문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다듬고 또 다듬은 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잘 배치시키고 장치를 마련해 놓은 글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속에 답이 다 있다!

문제의 유형 :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 유형별 공략이 반드시 필요~!!

자, 비문학 문제를 풀 때의 방법 소개할게요.

😊 정답은 없다. 그러나, 혜정샘은 이렇게 푼다!

① 시험지 받는다,

☞ 옷 당연한가요?

② _____부터 읽고 전략을 세워라,

☞ 문제를 먼저 읽어라! 문제를 먼저 읽으면 어떻게 지문을 독해할지 방법이 보인다!

내용전개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 ㉠, ㉡ 등에 대해 묻는 문제, 어휘문제 등

③ 지문을 읽으면서 나만의 기호로 표시

☞ 한 번 읽고 버릴 시험지 왜 깨끗하게 쓰지? 핵심어에 표시해 놓으면 문제를 풀 때 유리하다는 거!
핵심어를 제대로 파악만 할 줄 안다면 문제도 대부분 핵심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 된다!

④ 지문을 읽으면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실시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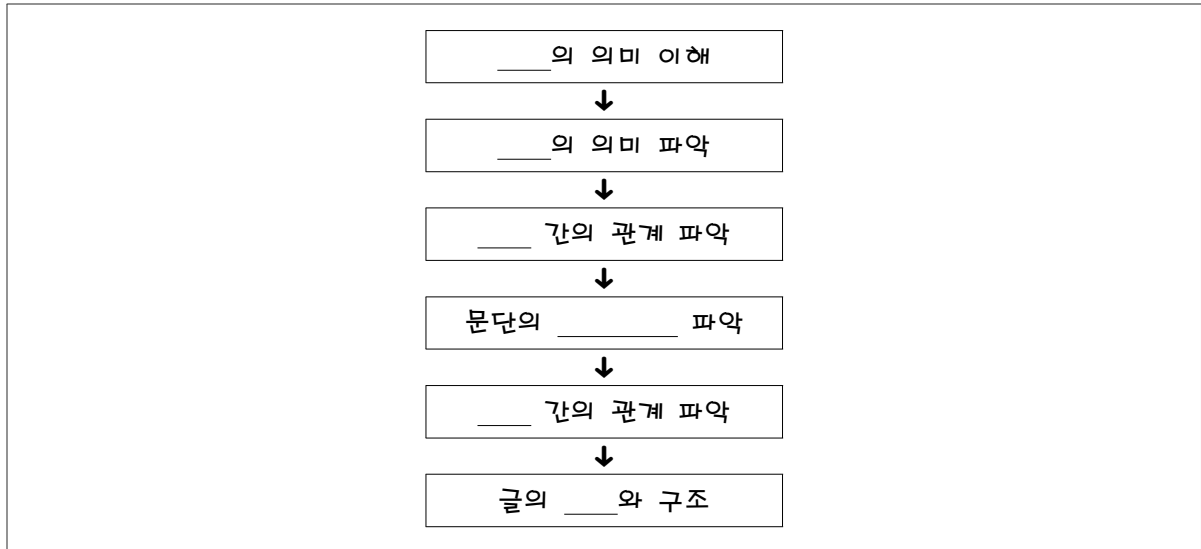
☞ 시간 관리의 중요성

⑤ 문제를 풀면서 지문에서 확인사항

☞ 반드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라,
넌 이래서 아니야!

그렇다면 비문학 문제 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읽기!?

문제 읽기! 아니죠~ **지문 독해!** 맞습니다~



지문 독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지문을 어떻게 제대로 읽어낼 것인지 그 방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비문학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어영역 공부, 이걸 꼭 기억하기!

① **기출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로 문제 ___을 파악한다,

☞ 가장 좋은 모범은 기출 문제와 평가원 모의고사

② **내 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 내 배경지식 뽐내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

③ ___으로 풀지 않는다,

☞ 누가 언어영역을 감으로 푼다고 하는가!

정확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비문학이 어떤 친구인지 대략 이해가 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개념들을 정리해나갈 거예요.

2단원 '화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2강, 화제

딱일부터 툼툼히 할 첫 번째 개념의 주인공은 '화제'
 그렇다면 '화제'가 어떤 친구인지 한 번 알아보자고요.

☺ '화제' 넌 누구야?

→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

- ① 일반적으로 지문의 _____을 화제라고 생각하면 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인공을 글 끝날 때쯤에 소개할 수 있을까?
 아니죠~ 화제는 어디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 주인공을 첫 문단에서 '여기에 집중해줘~! 나 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고 화제를 제시하지,
 고로 우리는 **지문의 _____에서 화제를 찾자** 이거지~
- ② 화제는 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등장도 제일로 많이 하지,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_____적으로 나타나, **우리는 _____적으로 언급되는 애를 찾으면 돼**, 아마도 그 애가 화제일 거야, 화제를 찾아서 그 녀석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문을 잘 이해하는 것! **바로 글쓴이가 화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야 돼,
- ③ 글쓴이가 화제에 대해 '애는 이런 녀석' 이라고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내가 **깔끔한 개념으로 정리**하는 능력 필요하다는 거~!!

그럼 지문을 통해서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해 볼까요.

2007 수능기출

제2차 세계 대전 중, 태평양의 한 전투에서 일본군은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자신들은 유색인과 전쟁할 의도가 없으니 투항하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물을 본 백인 장교들은 그것이 흑인 병사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급하게 부대를 철수시켰다. 사회학자인 데이비슨은 이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중매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곧 사람들은 수용자의 의견과 행동에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때 어떤 후보에게 탈세 의혹이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고 하자, 그때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자신보다 다른 독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현상을 데이비슨은 '제3자 효과' 라고 하였다.

→ 정답 : _____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다! _____

2007 수능기출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건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건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 정답 : _____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다! _____

2007 수능기출

많은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조작이나 선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불신하며, 대중문화를 천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해 왔다. 예를 들어 샌들은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이라는 조각 작품에서 힘찬 몸짓으로 텔레비전을 부수고 있는 인물을 형상화하여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그저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작품만으로 작가가 왜 이처럼 분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텔레비전 수상기 몇 대가 부수어진들 대중 매체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이기에, 이 힘찬 조각은 오히려 무력해 보이기도 한다.

→ 정답 : _____

나는 여기까지 생각한다! _____

보너스 문제는 숙제예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 줄게요~

보너스 문제

2007 6월 모의평가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정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정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방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정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정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정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온건한 공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 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7.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공정주의의 종류 | ② 공정주의의 적용 방식 |
| ③ 도덕적 정당성의 의미 | ④ 공정주의의 개념과 의의 |
| ⑤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 | |

‘화제’를 찾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글을 대했을 때 ‘아, 이 글은 이것에 대해 쓴 글이구나,

글쓴이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해야지!’

라는 생각 가져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 핵심정보

지난 시간에는 '화제'의 개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 딱딱부터 튼튼히 할 두 번째 개념의 주인공은 '핵심정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핵심정보'란 게 무엇일지 수업 속으로 들어갑시다~!

😊 '핵심정보' 뭘 의미하지?

→ 글쓴이가 가장 _____ 다루는 내용

글의 핵심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글에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 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지문에는 핵심정보에 반드시 동그라미 표시 혹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겠죠,

글의 핵심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_____ 을 나눈 다음 각 문단의 _____ 을 찾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핵심정보가 선명해지는 중심 문장 찾기

주연과 조연 찾기!! → ' _____ + _____ ' 으로 구분하기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은 어떻게 다를까?

중심문장 : _____ 적, _____ 적, _____ 적 내용이 담긴 문장

뒷받침문장 : _____ 적, _____ 적, _____ 적 내용을 다룬 문장

☞ 중심문장이 없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각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모아 모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면 OK!

다음 예문 중에서 핵심정보를 골라 볼까요?

2005 9월 모의평가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런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정답 : _____

2003년 9월 모의평가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느끼는 감각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육체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육체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따라서 나의 육체에서 발생하는 감각은 나의 육체를 넘어 타인의 육체로 이전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감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 감각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이다. 그리하여 만약 자신의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각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개별성에 함몰되기 쉽다. 다시 말해 쾌락과 고통에 대한 지나친 감수성은 사람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기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 타인을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다.

→ 정답 :

2005 9월 모의평가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의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 정답 :

2000 수능기출

뒷벽 중앙에 새긴 십일면관음보살은 더할 나위 없는 여성미와 육체미까지 나타내었다.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의젓한 얼굴판은 그만두더라도, 곱고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드리운 오른팔, 엄지와 장지 사이로 살며시 구슬 줄을 들었는데, 그 어여쁜 손가락이 곱살곱살 움직이는 듯, 병을 치키어 쥔 포동포동한 왼쪽 팔뚝! 종교 예술품으로 이렇게 곡선미를, 여성미를 영절스럽게도* 나타낼 수 있으랴? 그나 그뿐인가! 수없이 늘인 구슬 밑에 하늘하늘하는 옷자락은 서양 여자의 야회복을 생각나게 한다. 그 아른아른 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볼록한 젖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만한 허리를 대어 둥그스름하게 떠오른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살아 움직인다! 그의 몸엔 분명히 맥이 뛰고 피가 흐른다. 지금이라도 선뜻 벽을 떠나 지그시 감은 눈을 뜨고 빙그레 웃을 듯, 고금의 예술품을 얼마쯤 더듬어 보았지만, 이 묵묵한 돌부처처럼 나에게 감흥을 주고 범열(法悅)을 자아낸 것은 드물었다.

* 영절스럽다 : 아주 그절 듯하다

→ 정답 :

4강. 정보 간의 관계

지난 시간에는 '핵심정보'의 개념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 떠났부터 튼튼히 할 세 번째 개념의 주인공은 '찾은 정보들의 관계'

핵심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각 정보들을 확인하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 정보 간의 관계

→ 동의 관계, 대립 관계, 유의 관계, 상하 관계, 인과 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

자, 그럼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서	
① _____ 관계 : 속성이 일치하는 관계 ex) 인간-사람	
② _____ 관계 : 의견, 처지, 속성 등이 서로 맞서거나 반대되는 관계 ex) 남학생-여학생	
③ _____ 관계 : 비슷한 의미의 관계 ex) 마음-의향	
④ _____ 관계 :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범위에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 ex) 게임-스타크래프트	
⑤ _____ 관계 : 서로 원인과 결과를 이루고 있는 관계 ex) 연습-성적향상	
⑥ _____ 와 _____ 의 관계 : 어떤 구조의 전체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관계 ex) 자동차-바퀴	

그, 런, 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

_____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 정보나 개념 간의 관계는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다음에 제시된 두 정보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1999 수능기출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샘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철학이 진리의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60. 위글의 문맥상 '㉠샘 : ㉡바다'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싹 : 열매 ② 빛 : 그림자 ③ 비 : 구름
④ 휘발유 : 자동차 ⑤ 바위 : 이끼

→ 정답 : _____

2002 수능 기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다.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서 탄생하여, 생산의 주체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곧, 이익은 기업가로 하여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오늘날의 기업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포함된 다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 사회가 어떠한 집단도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다원(多元) 사회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이해 집단이 기업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으로는 노동 조합,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역 사회, 정부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이러한 다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해 집단의 요구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의 장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20. 위글의 논지에 비추어 ‘기업 : 이익’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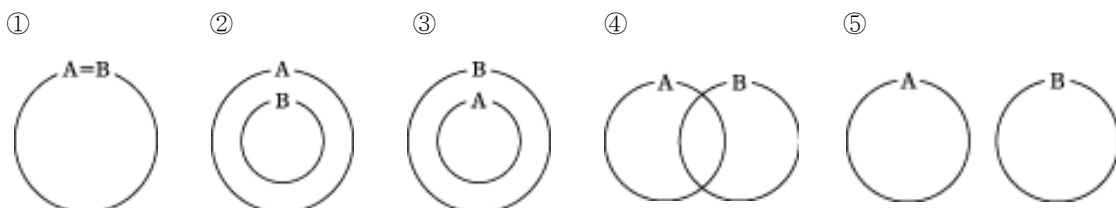
- ① TV 방송 : 카메라 ② 시계 : 틱니바퀴 ③ 연주회 : 지휘자
④ 스포츠 : 규칙 준수 ⑤ 정당 : 정권 획득

→ 정답 : _____

2007 9월 모의평가

20세기 들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이 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을 예로 든다. 누군가가 게임의 본질적 속성을 ‘경쟁’으로 본다고 해 보자. 곧 반례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은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졌지만 게임은 아니다. 한편 게임 중에도 경쟁이 아닌 것이 있다. 무제한 시간에 혼자 하는 카드놀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 가다 보면 모든 게임에 공통적인 하나의 본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이 바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 한다.

51.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임’ (A)과 ‘경쟁이라는 속성을 가진 것’ (B)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 : _____

보너스 문제는 숙제예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 줄게요~

보너스 문제

(가) 일찍이 그라이스(Grice)는 ㉠ ‘협력 원리’ 라는 말로 대화에 내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다. 사람들이 대화의 방향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말하는 대화의 협력 원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위 규칙인 네 가지 격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믿는 것, 혹은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는 <질(質)의 격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는 <양(量)의 격률>, ‘관련성을 지니는 말을 하라’ 는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모호성이나 중의성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 는 <태도의 격률> 등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 대화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손님을 초대하여 잘 차린 음식상 앞에서)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 발화는 한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 표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협력 원리를 준수한 발화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차린 것이 많다는 사실 그대로의 정보 전달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실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청자에 대한 관계 유지를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협력 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협력 원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를 ㉡ ‘공손 원리’ 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호 관계의 증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협력 원리보다 공손 원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50. ㉠ ‘협력 원리’ : ㉡ ‘공손 원리’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 | |
|-------------|-------------|-------------|
| ① 자전 : 공전 | ② 협력자 : 구원자 | ③ 교차로 : 신호등 |
| ④ 일반법 : 특별법 | ⑤ 하수도 : 상수도 | |

자, 이렇게 정보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접속어’ 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접속어 I

자, 오늘 딱앞부터 튼튼히 할 네 번째 개념의 주인공은 '접속어'
 그러나,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애들이 뭐요?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모르는 소리,
 접속어는 그냥 손만 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온 몸으로 말해 주는 녀석들이라
 는 거~ 우리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 문장 관계가 분명해지는 접속어

→ 순접, 역접, 인과, 전환의 접속어

자, 그럼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① _____ 관계 : 말할 내용을 이어 받아 연결(그리고)
- ② _____ 관계 :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 ③ _____ 관계 : 앞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따라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 ④ _____ 관계 : 앞의 내용과 다른 화제로 바뀌어서 연결(그런데, 한편)

잠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Tip 하나!

주의를 부르는 접속어~ _____ !!

☞ 접속어가 나왔을 때 우리 눈에 잘 띄이는 표시를 하면서 읽기, 특히 역접의 접속어 다음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펼칠 때 그 내용이 그 글의 중심내용, 주제가 쉬우니까~ 우리는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아 정신 차려서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EX) 오늘 갖고 나온 제품 그렇습니다. 휴대용 MP3입니다.
 이것이 왜 타사제품과 다르냐,
 다른 제품들은 용량에 제한이 있어 맘껏 다운받지 못한다는 거,
 이제품은 용량이 무한이라 무제한 다운이 가능하다는 거죠!
 _____ 노래한곡 다운받는데 24시간이라는 거,

다음 예문에서 문장의 앞뒤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접속어가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2006 6월 모의평가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정답 : _____

역접 :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제시할 때 드러나는 관계
뒤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2007 9월 모의평가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전쟁 중에 보였던 조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 정답 : _____

원인과 결과 :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를 제시하는 관계,
원인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것~
결과의 내용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2006 6월 모의평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 지적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 정답 : _____

순접 : 말할 내용을 이어받아 연결하는 관계
앞뒤의 내용이 대등하다는 거~!

2005 6월 모의평가

노래방에서 '방'은 두세 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광장'으로 나오면 청소년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 '광장'에는 기성세대의 문화만이 존재할 뿐 청소년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불순하고 병든 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금기가 청소년을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 음악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공중파 방송에서 유행하는 십대 취향의 노래에서 잘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상업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그 문화에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 정답 : _____

전환 : 앞의 진술의 흐름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는 관계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보너스 문제는 숙제예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 줄게요~

보너스 문제

2007 6월 모의평가

'사전' 하면 흔히 'ㄱ, ㄴ, ㄷ' 순으로 배열된 국어사전을 떠올리지만, 인간의 머릿속에도 사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머릿속 사전'이라 부른다. () 책으로 된 종이 사전과 머릿속 사전의 조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이 사전은 한글 자모 순서로 단어들을 배열하는 것이 표준이다. 머릿속 사전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면 말실수를 할 때 한글 자모 순서상 가장 근접해 있는 단어가 선택될 것이다. ()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그 단어를 얼른 생각해 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진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전에서 그 다음에 배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진선'이 선택되는 식이다. () 그런 경우는 드물다.

자, 접속어! 공부해 보니까 알아두면 무지 도움이 되겠죠?

오늘 배운 내용 한 번 다시 되짚어보는 센스~!!

6강. 접속어 II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접속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아직도 더 살펴볼 접속어들이 더 남았네요, 오늘은 또 다른 접속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장 관계가 분명해지는 접속어

→ 대등·병렬, 첨가·보충, 환언·요약, 예시의 접속어

자, 그럼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① _____ 관계 : 앞뒤 내용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면서 연결(또한, 혹은, 및)
- ② _____ 관계 : 앞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거나 보충(더구나, 게다가, 그뿐 아니라)
- ③ _____ 관계 : 앞 내용을 바꿔 말하거나 간추려 요약(요컨대, 결국, 즉)
- ④ _____ 관계 : 앞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예컨대, 이를테면, 예를 들어, 가령)

잠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Tip 하나!

주의를 부르는 접속어~ _____ !!

☞ 접속어가 나왔을 때 우리 눈에 잘 띄이는 표시를 하면서 읽기, 특히 요약의 접속어 다음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총 정리하여 한마디로 정리해 주겠다는 의미이니~ 우리는 요약의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아 정신 차려서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다음 예문에서 문장의 앞뒤관계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접속어가 들어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차트 1

2005 수능기출

선별 효과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미디어 메시지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며, 선택적으로 기억한다. () '가'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 후보의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보강 효과 이론에 따르면, 미디어 메시지는 개인의 태도나 의견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태도와 의견을 보강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 '가' 후보의 정치 메시지는 '가'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키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해 보면, 신문의 후보 지지 선언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답 : _____

예시 :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해를 도우려고 한 앞의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나을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썩 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밭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앉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중니?" / 또는 /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책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부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 정답 : _____

첨가 보충 : 새로운 내용을 보충

2003 9월 모의평가

인간의 감각 능력이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표정이나 몸짓 혹은 소리 같은 외적 징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유사한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상상과 짐작을 통하여 비슷하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을 연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고통에 대한 관념적 영상이 형성된다, 만약 우리가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이거나 또는 고통의 광경이 특별히 끔찍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만들어진 고통의 관념적 그림자가 마치 고통 그 자체인 듯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의 고통을 강하게든 약하게든 같이 느끼는 것이 동정심이다, () 타인의 고통이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감수성이 곧 동정심이다,

→ 정답 : _____

요약 : 앞의 내용을 짧게 간추려 요약

핵심을 짧게 간추린 것이니까 중심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2007 9월 모의평가

한헌샘 주시경은 국어학자이면서 국어 교육자이다, 그는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통해 국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켰을 뿐 아니라 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 맞춤법의 통일 같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다,

→ 정답 : _____

대등병렬 : 두 문장의 중요도가 같아서 대등하게 나열된 관계

문장이 모두 중심내용일 경우가 많다는 거~

보너스 문제는 숙제예요, 정답은 게시판에 올려 줄게요~

보너스 문제

1998 수능기출

정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조론으로 구별된다. 기술 결정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이 발전되면 정보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부문이 급격하게 떠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 구조라든가 정부나 기업이 조직되고 작동하는 방식에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구조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 정보 통신 기술은 변동의 기본 동인(動因)으로서 사회 변동에 자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술 결정론을 탈산업 사회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관점에 선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탈산업 사회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제' 보다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라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보면서, 정보 지식을 탈산업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간주한다. ()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참여 민주주의, 시민 운동에 의한 사회 변동, 물질주의적 가치의 퇴조' 등이 미래 정보 사회의 주요 특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사회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정보 기술을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진전되는 일도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따름이라고 본다. 정보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발전이 독립 변수가 아니라 일종의 매개 변수라고 보는 것이다. ()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접속어! 공부해 보니까 알아두면 무지 도움이 되겠죠?

다음시간에는 접속어처럼 우리의 독해를 크게 도와주는 지시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